

## FTI시험연구원,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

### 중소기업 기술혁신 자원 및 애로사항 최소화에 기여

FTI시험연구원이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나섰다. FTI시험연구원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지난 4월 4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이노비즈기업, 성능인증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충북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시험분석 수수료 감면 △기타 신원협력 분야에 대한 양기관의 상호 협조 등이다.

FTI시험연구원 측은 이번 협약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및 애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FTI 시험연구원은 지난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KATRI, MTS와 MOU 체결

### 글로벌 시험검사 기관 도약의 발판 마련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하 KATRI)과 MTS(Modern Testing Services (Global) Ltd.)가 지난 4월 6일 제품 시험 및 검사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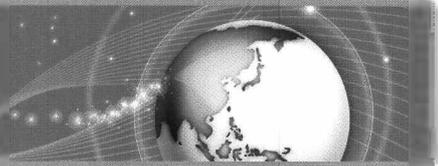
MTS는 중국 동간 본사를 비롯해 미국, 독일 홍콩 등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종합시험검사 기관이다. 섬유, 전기전자, 생활용품, 위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 및 기술인력 교류, 연구 개발, 상호 비교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상호 마케팅을 통한 공동 성장적 발돋움까지 가능하게 되어 수출 업체들에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KATRI 측은 "MT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글로벌 시험검사 기관으로의 도약을 한걸음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지난 4월 6일 MTS와 MOU를 체결했다



## KATRI,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업무협력 체결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



▲ KATRI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하 KATRI)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소비제품의 시험 및 연구조사' 사업을 위한 업무협력을 지난 4월 5일 체결했다.

KATRI는 최근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인 스마트 컨슈머의 출범 등 소비자 비교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품질검사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소비자 단체들과의 업무협력을 기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ATRI와 녹색소비자연대는 의류, 차제, 완구 및 기타 소비제품의 시험분석 및 품질검사 사업에 대해 협력한다. 또한 국내·외 제품 관련 조사업무에 관한 협조, 소비자보호 및 제품안전에 관한 각종 기술, 조사·분석 정보의 교환을 통해 적극적인 소비자 비교 정보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KATRI는 소비자들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KCL, IBK기업은행과 MOU 체결

### 연구비 관리시스템,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기여에 협력



▲ KCL과 IBK기업은행이 KCL 사옥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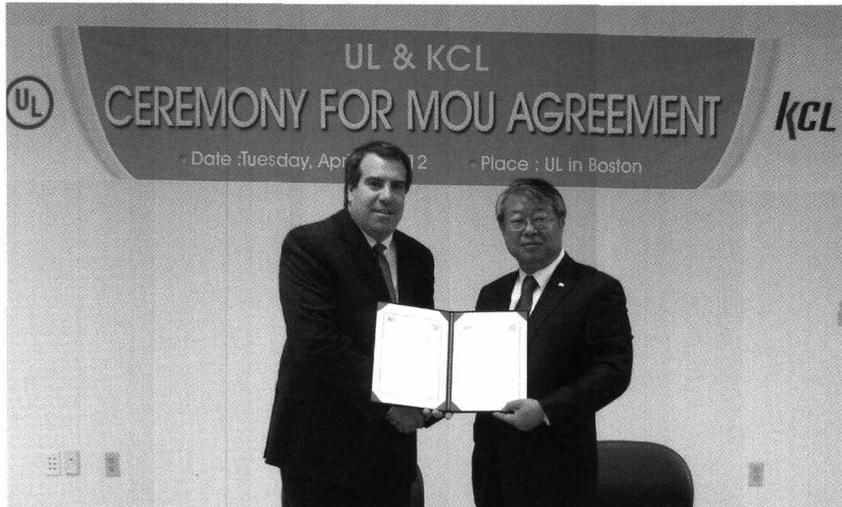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IBK기업은행과 MOU를 지난 4월 2일 체결했다.

KCL과 기업은행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MS) 구축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협력 및 금융지원 △KCI 아카데미 교육상의 일자리 창출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KCL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투명한 연구 과제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사회적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창업자의 자금·세무 관련 경영상남, 무료로 실시하는 등 상호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KCL, 美 UL과 MOU 체결

소비자 이익 위한 시험 등을 협력하기로



▲ KCL과 UL은 MOU 체결을 통해 검증시험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지난 4월 11일 세계적인 안전인증 전문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품 시험분야 기술정보 교환 및 신뢰성 평가 부분 상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UL은 1894년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인 위지도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관이다. 이 때문에 제조사, 유통업체, 수입업자 대부분이 UL 마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제조사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이나 다름없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KCL과 UL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제품 검증 및 시험에 관한 경험, 지식과 기술적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제품의 신뢰성 평가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KCL 관계자는 "세계적인 안전인증기관인 UL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KCL, 기초과학지원연구과 MOU 체결

기술협력 및 인력 상호교류 합의... 상호발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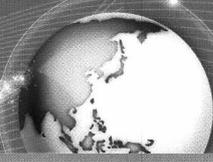


▲ KCL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과 MOU를 체결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과 MOU를 체결했다. KCL은 지난 4월 18일 서초시목에서 송재민 원장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준택 원장과 주요 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해각사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KCL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정밀 시험 분석분야의 기술협력, 시험분석 인력의 상호교류, 인력사범과 장비 공동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KCL 관계자는 "분석과학 역량이 세계 수준인 기초과학연구과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은 계기로 정밀 시험 분석분야의 기술세고와 공동연구 등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KTC, 기술표준 및 지역산업발전 위한 업무협약식 참여

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인적자원 교류, 협력체계 구축 등 합의



▲ 기술표준 및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후 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교영 단장, 충남테크노파크 장원철 원장,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심운수 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임창현 원장, 익류시험연구원 김하영 원장, 대전테크노파크 박주병 원장, KTR 시험연구원 노모욱 원장,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리수 부원장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이 지난 4월 17일 충북 테크노파크 미래융합기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술표준 및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에 참여했다.

이 협약식에는 KTC 심운수 원장을 비롯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청권 테크노파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시험연구원 등 5개 시험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기술표준 업무증진 및 중장기지역산업발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이 뜻을 같이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협약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평가·인증분야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기술정보 교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협조 등이다.

또한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국가표준과 기술, 산업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충청권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인 태양광,

유리기기, 반도체, 그린에너지 분야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책기관 및 충청권 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ISO test(정전기 테스트), 진시현미경, IMM(열발화화상기), 위장·낙하시험, 전력계통시험, 위상능시험 등의 장비활용과 부품소재 기술개발 R&D, 차세대에너지 분야 R&D, 국제인증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을 주최한 충북TP 임창현 원장은 "충청권어 입지한 기술·반기업들이 기술인증 및 평가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근접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동 R&D 및 장비활용 등을 통해 상호 여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협약은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협약 폐기에 관한 시며 통보가 없는 한 자동으로 2년씩 연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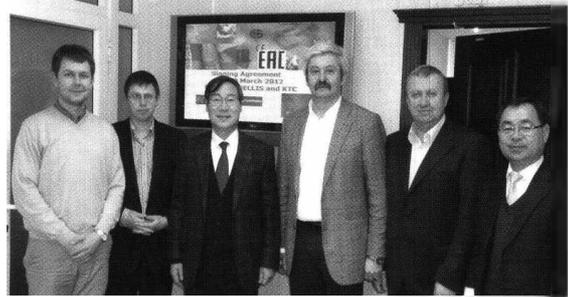
## KTC, 벨라루스 BELLIS 인증기관과 MOU 체결

### 시험성적서 및 공장심사 성적서 협력 ... 러시아 진출 교두보 역할 기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벨라루스 벨리스(BELLIS) 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 MOU를 체결했다. 신윤수 KTC 원장과 인증사업부 양승인 본부장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MOU 체결을 위해 미스크에 소재한 벨리스(BELLIS) 인증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이 발행하는 상호성적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체결로 국제표준과 상호정보 공유 및 교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기용품 안전 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과 ECUIS 시험소의 적합성 평가 등이다.

KTC 측은 BELLIS와의 MOU 체결을 통해 러시아 인증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와 동일한 안전기준과 인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벨라루스와의 시험성적서 및 공장심사 성적서 상호인정협정 이후 양 기관이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KTC는 벨라루스 벨리스(BELLIS) 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 MOU를 체결했다.

## KTR, GOST-R 인증 세미나 개최

### 보르비여프 겐나디 초청, GOST-R 설명 및 수출 상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러시아 수출을 위해 기업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8일 GOST-R 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 최대 시험인증기관인 VNIIVASH의 전문가 보르비여프 겐나디 본부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보르비여프 겐나디 본부장은 석유 및 가스생산 설비 표준화를 비롯해 인증 및 관리, 밸브 기계의 인증 전문가이자, 산업 안전 RTN(러시아 연방 유해산업시설 인증) 전문가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전기전자, 의료기기, 기계/압력용기, 식품 등

GOST-R 인증 세부분야를 설명했다. 또한 GOST-R 제도 및 기술규정을 설명하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 인증 상호 인정 및 관련 상담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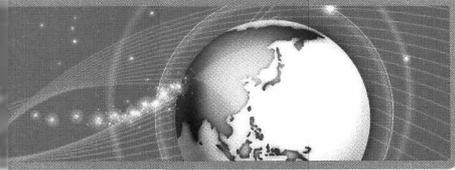
국내 최초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공인 시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KTR은 수출 시 필요한 GOST-R 인증은 직접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KTR에서 수행 가능한 GOST-R 시험 및 인증범위는 전기전자제품, IT기기, 기계류, 부품, 건축기자재, 금속, 플라스틱 등 대거 수요 수출품목 15개 분야다.



▲ KTR은 러시아 전문가를 초청해 GOST-R 인증 세미나를 개최했다.



▲ 보르비여프 겐나디 본부장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KTR, 산업위생학회 우수논문 표창

### 논문 우수성과 산업위생 연구발전 기여도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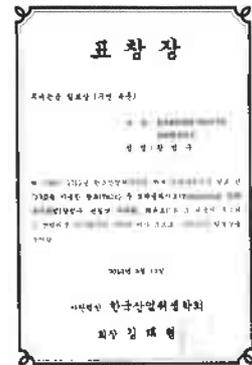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 4명이 지난 3월 15일 한국산업위생학회로부터 우수논문 표창을 받았다.

황범구 환경보건팀 과장겸 선임식 본부장, 이재형 팀장, 최윤호 대리는 한국산업위생학회 농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 발표상(구연구부문)을 받아 논문의 우수성과 산업위생 연구발전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논문 주제는 'XRF를 이용한 탈크(Talc) 중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정량 분석방법'으로 KTR은 2011년 한국산업위생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해당 논문을 발표하비 있다.

산업보건 분야 최대 규모를 지닌 한국산업위생학회는 매년 2회

개최하는 학회를 통해 참석자들과 우수 논문 및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 KTR이 우수논문 발표성 표창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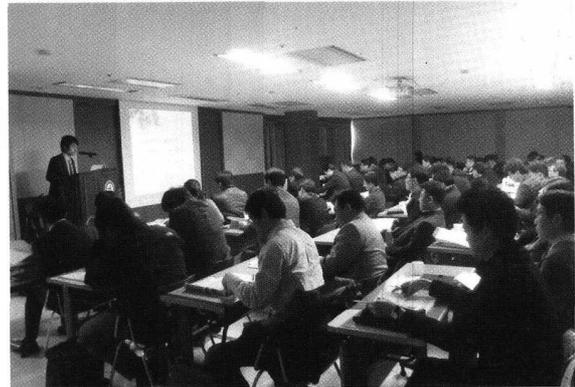
## KTR,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규격제정 공청회 개최

### 대기전력차단콘센트 규격 개발의 초석 마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이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안전기준 규격 개발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KTR은 지난 3월 15일 전자파연구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대기전력차단콘센트 안전기준안을 발표하고 정책 및 향후 전망, KC기준 등을 관련 기업 담당자들에게 소개했다.

대기전력차단콘센트는 전기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되는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현재 일반콘센트와 달리 전용 규격이 없어 안전성 검증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기술표준원과 KTR은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해 안전성 검증 규격을 제정,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KTR은 지난 2월 28일과 3월 8일 2차례 걸친 전문위원 회의를 통해 규격 제정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전문위원 회의와 공청회에서 도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안전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 KTR이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규격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